

원앙부인 통해 아낌없는 보살행 표현



안락국태자경변상도(安樂國太子經變相圖). 조선전기 1576년경. 일본 청산문고 소장.

알고 가는 이도 끊어지던 이른 훗날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면서 왔느냐. 대저비 원앙새와 공덕 닦는 내 몸이 정각(正覺)하는 날에 만나보리라

〈월인석보:제244곡〉



불화 속의 명 장면 (2)

일 청산문고 '안락국태자경변상도'

왕은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않고 선근을 닦고 무상도를 구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나섭니다 → 이때 원앙부인도 동행하게 되는데, 멀고 험한 여정 중에 심한 발병이 나고 또 만삭의 몸이라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→ 그리하여 죽림국 자연장자의 집에 제집종으로 팔아 보시케 해달라는 부인의 청대로,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금 4천근에 팔리게 됩니다 → 사라수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이름을 '안락국'이라 지어주고, 서로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자라는 언약을 하고 이별합니다 →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종으로서의 고생과 학대를 받는 원앙부인 → 안락국이 일곱 살 되던 즈음,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장자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, 그만 실패하여 얼굴에 수물들로 문신을 당하게 됩니다 → 두 번째는 성공하여, 임정사로 향하는 함겨운 여정이 오릅니다 →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상봉하는 아들 안락국 → 그러나 기쁨도 잠시, 원앙부인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사라수왕은 하릴없이 이들을 귀가를 재촉



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된 원앙부인과 이별하는 사라수대왕.

아미타불이 이끄는 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향하는 원앙부인과 안락국태자.

옹이 31절의 가곡(월인부)과 연문주석(상절부)으로 실려 있습니다. 약 1미터 길이 화폭의 본 작품에는 제작(1576년) 당시의 한글 화기(書記)와 함께 총 22장면이 그려져 있는데, 등장인물들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그 표정과 몸짓들이 참으로 풍부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

작품 가장 상단의 발원문에서 주상전하와 왕비전 하(즉 선조와 의인왕후)와 더불어 공의왕대비 · 덕빈저하 · 해빈정씨 등 다수의 비빈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축원이 확인되어 왕실의 왕비 및 후궁과의 밀접한 관련이 추정됩니다. 또 '사라수구탱(沙羅樹舊頌)'이 오랜 세월을 견디느라 희미해지고 좁고 마멸되어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이를 다시 그려 넣었다'라는 문구에서 본도보다 더 오래된 원본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면면히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왕실에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져 사랑받았던 이 이야기는, 한글창제 후 최초의 국문본으로 손꼽히는 <석보상절>이 편찬된 시점에서부터 아마도 왕실의 여인들에게 널리 애독되었던 당시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.

선덕여왕 때(643년) 광유성인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임정사 창건설화(기림사창건연기문)와 '신라환월산 기림사사적'에서도 본 설화와 동일한 내용이 확인됩니다. 원효가 중창하여 기림사로 개칭한 이 사찰은, 조선전기 대대적인 사찰의 화파가 집행될 때에도 해인사와 더불어 경상도지역에 살아남은 4대 사찰중 하나로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사찰입니다. <안락국태자경>의 그 저본의 출처를 둘러싸고, 국어학자들 간에는 중국 출처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 설화로, 자생적 변문(變文)으로 의견이 모아져 더욱 고

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본도에서 그려진 안락국태자전은 고대소설의 모태로서 또 서사무가의 주체로서, 국문화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자료입니다.

그런데 이 설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아십니까? '광유성인은 석가모니불이시고, 광유성인이 거느린 오백제자는 오백나한이시고, 사라수대왕은 아미타불이시고, 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이시고,

한 편의 연극을 벌이고 간 듯 한 느낌입니다. 사라수대왕은 속세의 정을 끊고 무상도를 위한 수행 끝에, 안락국태자는 행원을 위한 정진 끝에, 원앙부인은 아낌없는 보살행(보시) 끝에, 모두 열반에 들었습니다.

많은 등장인물 중에서도 이 설화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원앙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앙부인은 남편과 이별할 때, 출고 배고플 때 그것이 아플라고 왕생계(往生偈)를 지어줍니다. 이 왕생계는 남편 사라수대왕

중생들의 극락왕생 염원과 애절한 사연 화폭에 가득

우리나라 자생 설화로 국문학 · 문화예술사적 가치 뛰어나



승렬비구를 따라 범마라국 임정사로 향하는 여덟 궁녀.

안락국은 대세보살이시고, 승렬비구는 문수보살이시고, 팔공사는 팔대보살이십니다. 너무나 흥미로운 경전의 마지막 단락. 그리고 보니 작품 내용에 복선이 너무 많았군요. 바로 '극락(極樂)' 그 자체를 의미하는 '안락국(安樂國)', 부부 글씨가 유달리 좋다는 '원앙(鴈)' 등, 결국 사라수대왕과 원앙부인, 안락국태자의 정체는 '아미타존'으로 밝혀졌습니다. 마치 불보살들이 중생교화를 위하여 지상에 화신하여 내려와

의 오래고도 고된 수행을 버티는 힘이 되고, 아들 안락국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주문이 되고, 또 그를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. 대저비를 상징하는 관음의 화신인 원앙부인의 모습에서,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두 희생하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

강소연(한국미술사연구원 연구원)

'안락국태자경' 내용 월인석보에 가곡·연문주석으로 실려

한글 화기(書記)와 함께 표정 몸짓 풍부하고 섬세하게 묘사

국월 노선은 아예 다치지 않고 매우 뜬 지방 원형 열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일본 시코쿠 오지의 한 책방, 힘겹게 발품 팔아 찾아온 노고 를 보상 해 주려는 듯, 참으로 특이한 설화형식의 오색 선명한 조선시대 궁정불화 한 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두루마리의 죽자 그림이 펼쳐지면서, 유려한 글씨가 눈을 사로잡습니다. 초창기 훈민정음의 설명과 함께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. 인문의 명문을 읽어가며 장면 장면들을 따라 가보니, 사라수대왕과 원앙왕비의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과 애절한 사연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. 본 작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

범마라국 임정사(林淨寺)의 광유성인(光有聖人)은 승렬비구를 서천국 사라수대왕국에 보내 찾들 길어오는 시종을 들 팔공사(八公寺)를 청합니다 → 다음으로 사라수대왕(沙羅樹大王)을 청하게 됩니다 → 사라수대

합니다(글머리에 소개한 '월인석보:제244곡'은 그 해 어짐을 슬퍼하여 부른 왕의 노래입니다 → 그런데 다시 죽림국으로 돌아오자 소를 치는 한 곡동의 노래가 아득히 들려옵니다 → '아버지가 그리워 천리만리 찾아가더니 돌아와서는 어머니를 찾을 길 없구나, 그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, 고독한 안락국이여, → 짝짝 놀라 (말 그대로) 보리수 밑에 가보니, 자신의 탈출도 장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몸이 세 동강으로 베어지던 머니의 시체가 남자하였습니 → 안락국은 동강난 시신을 한 데 모아 이어놓고 언덕터 울며 서방을 향해 합장하니, 하늘이 진동하고 48용선이 내려와 이들을 태우고 극락세계로 향하였습니.

세조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<월인석보:권8(1459년)>에는, '원앙부인극락왕생연'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<안락국태자경>의 내

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

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

식약청 의료기기 05-0626호 인증

건강의 기, 생명의 빛

●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●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● 전자파 장애실험필

전물로도 최고! 건강에도 최고!

가격 245,000원

“암은 열에 약하고”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.

원적외선 “침”의 효능/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

원적외선 “침”의 효능/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

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“침”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 품으로 허리, 발바닥온열 지압, 어깨결림,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**암과 질병**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.

미국, 독일,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H(원적외선 전신온열)이 최근 한국 임재환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. 환자의 전신을 42℃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.

은행석 온열복대는 80℃의 고열이 발생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**혈장까지 42℃의 열을 가온하는 의료기기**입니다.

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

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

●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● 허약한 **氣**회복 ● 생리통 **허리통증 완화** ● **이랫배가 냉**하신 분 ● **하복부 지방분해 효과**로 다이어트에 최고 (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.) ● **신축조리, 수술후** 양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● **외지에 있어 장시간 임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**의 디스크 허리교정

문의전화 : 닥터극강 (02)3210-3178, 9 www.dk21.net ● 입금계좌 : 농협 170-12-056037 정예영 ●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.

불교평론

Buddhist Review

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<불교평론> 2005년 겨울호(통권 25호)가 발행되었습니다.

이번 호에는 '향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' (조성택)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.

<불교평론>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'불교평론' 합본 CD를 드립니다.

특집 '헬빙 시대의 잘 죽기'

헬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(오진탁) / 붓다의 죽음 (안양규) /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(김영숙) / 부활, '웰다잉'의 한 해석 (이찬수) /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(강진표) / 근사제형(近死體驗)이란 무엇인가? (최준식)

논단

울장은 금서인가 (마성 스님) /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불교 (김광석) /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(박광준) /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(박진영) /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(강소연) / 탁нат한 프림릴리치 선수형 고찰 (김중준)

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

● <불교평론> 고객센터(02-2004-8211~2)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.

● 구독료는 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.

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

●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

● 계좌 은행 : 국민은행 : 038-25-0008-365(현대불교신문사) / 농협 : 100126-55-002417(현대불교신문사) (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)

■ 불교평론 광고 신청 접수 : 전화 02)2004-8214, 010-7339-8688, 팩스 02)737-0696